

제7차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최신 공정거래 이슈에 관해 전세계 경쟁법 전문가들이 참여한 논의의 場

지난 9월 5일 오전,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최근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쟁정책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제7차 서울국제경쟁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 처음 개최한 이후 이번에 7회째를 맞이하게 된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전 세계 주요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를 비롯하여 경쟁법 및 경쟁정책의 권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경쟁법 · 정책 국제회의입니다.



제7차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식 전경

제7차 서울국제경쟁포럼은 미국, EU, 일본, 호주 등 주요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OECD와 UNCTAD 등 국제기구, 미국 반독점연구소 · 중국 사회과학원 · 호주 행정대학원 등 학계의 경쟁법 권위자 등 전 세계 25개국에서 120여명의 고위급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날 개회사를 통하여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경쟁 당국의 새로운 역할 수행을 주문하였습니다. 김동수 위원장은 “기업과 소비자간 정보비대칭 심화 등은 경쟁당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말하고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은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거대기업의 시장 분할과 국내 기업간 카르텔 등 불공정 관행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인한 산업의 융·복합화와 지식재산권 남용 등의 새로운 경제양상은 경쟁법 분석틀의 전환과 적절한 법·제도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이번 서울경쟁포럼에서는 ‘세계화’, ‘소비자중심사회’, ‘지식경제화’ 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전 세계 경쟁당국과 경쟁법 전문가들의 지혜와 통찰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이번 포럼 개최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경쟁법 집행과 다른 정책 분야간 접점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3가지 안건을 의제로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최근 국제경쟁법 집행 동향 및 그 영향’을 주제로, 최근 글로벌 금융·재정위기 등 전 세계적 경제문제 해소를 위한 경쟁당국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토시유키 남부(Toshiyuki Nambu)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 국제심의관은 “양극화 등의 신자유주의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자본주의 4.0’ 등 새로운 시장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당국도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양극화를 저지하려면 전통적으로 경쟁법이 우선 추구해왔던 경쟁 보호와 함께 경쟁자 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경쟁법·정책과 소비자법·정책의 조화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경쟁압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독려하는 방법과 양극화 시대에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관계의 최근 국제적 흐름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상호조정 가능성 탐구’에 대하여 발표한 로드 심스(Rod Sims) 호주 경쟁 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은 “경쟁압력의 주체이자 경쟁법 집행효과의 궁극적 귀결점인 소비



본 포럼 전경

자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변화된 거래환경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피해를 구제하려면, 가격과 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제3세션에서는 ‘반독점과 IPR의 교차점에 있는 최근 이슈’를 주제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허분쟁을 포함하여 급속한 IT 기술의 발달에 따른 경쟁정책의 집행방향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T 산업의 생명인 혁신 유인의 보호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표준기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쟁의 보호간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을 재조명해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앨버트 포어(Albert A. Foer) 미국 반독점연구소(American Antitrust Institute) 소장은 ‘지적재산권(IPR) 보호와 표준특허 남용행위’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IT 산업의 생명인 ‘혁신 유인의 보호’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표준기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쟁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경쟁당국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다국적 기업간 특허분쟁 시에 경쟁법 적용의 쟁점, 즉 지적재산권 보호와 특허남용의 규제와 같이 최근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이슈가 선정되어 국내 기업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세계에서는 삼성, SK, 포스코, 롯데 등 주요 기업의 법무책임자 수십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롯데그룹과 포스코는 임원급 인사가 참석하였고, SK네트웍스도 법무담당 실무책임자가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물산 등 핵심 계



제7차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 내외빈 기념 촬영

열사의 법무책임자들을 비롯하여, 임원급 인사들도 상당수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소송이 확대되고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서 해당 국가의 경쟁법 체계를 아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선진국의 경쟁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져, 이전 행사 때보다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크게 늘었다”는 공정위 관계자의 말처럼, 국내에서 특허 남용과 반독점에 대한 관심이 고양된 상황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서울국제경쟁포럼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쟁법·정책 포럼으로 정착시켜 역내 경쟁당국 리더로서의 공정위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세계 경제의 화두와 밀접하게 연관된 경쟁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제시함으로써 정부·실무·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국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의도와 노력은, 이번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